

세무회계저널
제9권 제2호 2008년 6월 pp.73~104
한국세무학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이명곤** · 이세철*** · 장석진****

<요 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하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할 책임을 지며, 경영자와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고 의견을 공시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는 재무제표 감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내부통제의 평가와 이에 따른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도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가 감사절차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가 감사투입과 감사위험에 대한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감사투입은 감사시간으로 측정하고 감사위험에 대한 보상은 감사보수로 측정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에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은 통제위험이 높게 평가되어 감사투입을 의미하는 감사시간 뿐만 아니라 감사위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감사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은 감사시간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감사인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경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외감법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의무화되고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초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와 재무제표 감사업무의 유기적 조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은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기업실패위험이 높고, 감사인이 기업실패위험에 대한 할증보수를 청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07-G)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leemg@hanyang.ac.kr, 02-2220-1076, 주저자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accleesc@hanyang.ac.kr, 02-2220-1076, 공동저자

**** 한양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seokjin3@hanyang.ac.kr, 02-2220-1076, 공동저자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용성을 감사인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가 감사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초기에 제도의 유용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또한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도적, 실무적 문제점을 조명함으로써 추후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실패

I. 서 론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를 위한 감사계획단계에서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사를 통하여 통제위험을 평가한다. 감사인은 이 과정에서 파악된 통제위험을 바탕으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하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하며, 경영자와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고 의견을 공시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이하 ‘검토기준’)은 위의 두 가지 업무를 별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관련성에 대하여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는 재무제표 감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내부통제의 평가와 이에 따른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도 유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통제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되며, 감사절차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가 감사절차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가 감사투입과 감사위험에 대한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감사투입은 감사시간으로 측정하고 감사위험에 대한 보상은 감사보수로 측정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에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이하 ‘취약기업’)은 통제위험이 높게 평가되어 감사투입을 의미하는 감사시간 뿐만 아니라 감사위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감사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2005년과 2006년의 취약기업과 대응표본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명곤 등(2007b)은 취약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표본의 정규분포 가정이 무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취약기업의 3배수로 대응표본을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응표본을 취약기업이 속한 동일 산업 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취약점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 중 1배수, 3배수 및 동일산업의 전체 기업으로 선정한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은 감사시간과 감사시간의 변화에 무관하지만 감사보수와 감사보수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통제위험에 대한

지표가 된다고 볼 때,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통제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 한편, 감사보수는 감사투입자원에 대한 보상 외에도 감사 위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기업실패위험을 높게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과 관련한 잠재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험할증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²⁾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용성을 감사인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가 감사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초기에 제도의 유용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또한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도적, 실무적 문제점을 조망함으로써 추후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가설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및 제도적 변화

미국에서는 2001년에 발생한 엔론, 월드콤 등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해 2002년 Sarbanes - Oxley Act(이하 'Sarbox')가 제정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Sarbox 404조는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구축·운영할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으며 경영자는 사업보고서에 내부통제보고서를 포함하여 공시하고 감사인은 내부통제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회계처리기준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회계정보 및 공시정보를 산출하는 과정(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 : DC&P)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제도개혁방안이 발표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은 2001년 구축법에 포함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오다 2003

1) 이명곤과 이세철(2004)은 감사인들이 입증절차를 수행할 때 통제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명곤과 이화득(2004)은 부실감사의 주요원인이 충분하지 못한 감사시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강내철과 김길훈(2005)은 기업실패위험이 높은 기업의 감사인은 미래의 소송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사자원의 투입을 증가시키거나, 미래의 잠재적 배상책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험할증 보수를 청구한다고 하였다.

년 외감법으로 이관되어 영구 법제화되었다. 외감법으로 이관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화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대한 결함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³⁾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련 법규는 완비되었지만 구체적인 실무지침이 마련되지 못하여 혼란을 겪다 2005년 6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이하 ‘검토기준’)이 제정되었다.

모범규준은 외감법에서 규정한 핵심적인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시기는 200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이다. 모범규준은 강제성을 지닌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 되는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평가를 위하여 모범규준 대신 기타 검증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검토기준은 경영자가 모범규준 등 검증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했는가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를 검토하고 보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제정하였다. 검토기준의 적용시기는 2006년 1월 1일 이후이다.⁴⁾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경영자 자체평가에 대해 검토절차를 수행한다. 감사인의 검토절차는 경영자의 자체평가 결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게 문서화되었다는 전제로 수행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경영자의 결론과 이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문서화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실상 중요한 범위제한 사유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파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평가하여 그 미비점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되어서 유의한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인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표 1>은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의 분류기준을 보여준다. 검토업무의 수행에 제한이 없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은 내부회

3) 구축법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은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2003년 12월에 제정된 외감법의 규정에 따라 2004년 4월 1일 이후부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검토의견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서 보고해야 한다(외감법 시행령 제2조의 3).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시작이 1월 1일이므로 2005년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있다. 단,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 미만인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2007년 6월 30일 이후에 외감법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2005년 3월 29일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 및 보고요령’을 제정함으로써 2005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검토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의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보고요령을 활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업무를 수행한다.

계관리제도가 중요성 관점에서 설계 및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검토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표 1〉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의 분류기준

미비점의 분류	재무제표 왜곡표시(misstatement)의 발생가능성	재무제표 왜곡표시(misstatement)의 잠재적 크기
유의한 미비점 (significant deficiency)	낮지 않음 (more than remote)	미칠 수 있는 영향금액이 의미가 있음 (More than inconsequential)
중요한 취약점 (material weakness)	낮지 않음 (more than remote)	미칠 수 있는 영향금액이 중요함 (material)

- 1) 통제미비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완통제의 효과성을 고려한 후에 개별적 통제미비점 또는 다수의 통제 미비점의 결합된 영향이 상기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통제 미비점은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다.
- 2)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05년 6월 28일에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의 <보론 1>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 등의 평가절차.

2. 선행연구

가. 감사위험과 감사투입에 관한 연구

과거의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보다는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사업보고서부터 감사시간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면서 감사시간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⁵⁾

최 관(1999)은 감사시간과 감사대상회사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감사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감사시간의 결정변수를 도출해 냄으로써 감사서비스 생산함수를 추론하였다. 감사시간의 주요 결정변수가 기업규모와 해외매출액 비중, 사업장의 수, 상장 여부, 산업특성 등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추가분석 결과에서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감사위험, 감사의 난이도가 감사시간에 유의한 결과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연구는 내부통제제도, 감사위험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변수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권수영 등(2005)은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보수의 일반적 결정요인을 통제한 후에 감사시간이 감사보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남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Big 5 제휴법인일수록, 재무위험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감사투

- 5) 2001년도부터 사업보고서에 과거 3년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었다. 즉, 1999년 이후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감사시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되고 있지만 감사시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노준화 등, 2003 ; 권수영 등, 2005 ; 박종일과 박찬웅, 2007 등).

입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일과 박찬웅(2007)은 비정상 감사보수가 비정상 감사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감사시간의 일반적인 결정요인 및 비정상 감사보수까지 통제한 후에도 Big 4 제휴법인의 경우 비정상 감사시간의 투입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들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분석한 연구는 Means and Kazenski(1987), Raghunandan and Rama(2006) 등이 있다. Means and Kazenski(1987)는 조명기구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내부통제제도가 취약한 기업이 취약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단위당 평균 감사시간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Raghunandan and Rama(2006)는 미국의 Sarbox 404조가 발효된 이후 감사보수가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 기업의 감사보수가 취약점이 없는 기업의 감사보수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Raghunandan and Rama(2006)는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변수의 변화분을 이용한 변동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Raghunandan and Rama(2006)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공시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신현걸(2007)은 2005년에 처음으로 공시된 3,210개의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약 1.7%에 해당되는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약 1.9%에 해당되는 기업은 검토범위 제한으로 감사인이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명곤 등(2007a)은 2005년에 처음으로 공시된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된 기업을 대상으로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고,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취약기업 특성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외환거래의 비중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Big 4 회계법인이 검토하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감사인 측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감사시간, 감사보수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용성을 감사실무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가설설정

감사인인 감사계획단계에서 파악된 고위험과 통제위험이 증가할수록 적발위험을 감소시켜 목표 감사위험을 달성하고자 한다. 적발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감사절차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며, 감사절차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감사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감사시간은 감사투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감사시간의 증가는 감사보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통제위험의 증가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모두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통제위험과 감사시간, 감사보수의 관계는 Means and Kazenski(1987)와 Simunic(1980)의 분석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는 통제위험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서는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는 재무제표 감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내부통제의 평가와 이에 따른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도 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발견된 취약점은 통제위험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통제의 취약점과 감사보수의 관계에 대하여 Raghunandan and Rama(2006)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첫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감사인의 감사절차에서 변동사항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내부통제가 어느 정도 취약한 기업의 통제위험을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시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내부통제제도의 의무화 이후에는 오히려 내부통제 평가절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감사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둘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감사대상회사의 경영진과 파트너 급 감사인의 상담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셋째, 발견된 내부통제의 취약점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해야 하는 시간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은 감사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감사보수는 감사투입자원에 대한 보상 외에도 감사위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닌다(강내철과 김길훈, 200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기업실패위험을 높게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과 관련한 잠재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위험할증 보수를 청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취약기업의 감사인이 위험할증 보수를 청구할 것이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2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은 감사보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기업은 고품질의 감사인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감사보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모형에서 감사인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BIG4 변수가 이러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⁶⁾

우리나라 감사실무와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취약기업의 감사인이 높은 통제위험에도 불구하고

고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명곤과 이세철(2004)에 의하면 감사인이 입증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제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 관(1999)은 내부통제의 적정성이 감사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감사인이 통제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감사투입과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발견되어 통제위험이 높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한다. 모형 (1)과 모형 (2)는 각각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의 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모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제위험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취약점 존재 여부와 비교하여 취약점의 수는 통제위험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의 수를 가설검증을 위한 실험변수로 정의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모두 고려하여 모형 (1)과 모형 (2)를 설정하였다(Simunic 1980 ; Palmrose 1989 ; 권수영과 김문철 2001 ; 박종일과 박찬웅 2007 등).

감사대상회사 규모와 감사위험, 감사업무의 복잡성 등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결정짓는 주요 공통변수에 해당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사시간의 결정모형과 감사보수의 결정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를 동일하게 선정하고 있다(최 관과 백원선, 1998 ; 박종일과 박찬웅, 2007 등). 본 연구에서는 모형 (1)과 모형 (2)에 포함되는 변수 중 연결자회사의 수(CONFM)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설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대상회사의 직전년도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감사보수가 감사계약단계에서 결정되며, 감사수행 과정에서는 감사보수에 대한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실무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감사보수의 결정모형인 모형 (2)에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감사보수(A_FEE)와 독립변수의 측정시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단, 감사인의 특성과 관련한 감사인 규모(BIG4), 초도감사 여부(FIRST), 감사인지정여부(AUDREG) 등은 감사보수의 측정시점과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된다. 한편, 박종일과 박찬웅(2007)은 감사보수에 동일 시점의 연결자회사의 수가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모형 (2)에 연결자회사의 수를 포함할 경우 2007년 연결자회사의 수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2007년의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 2007년 연결자회사의 수를 측정할

6) 이명곤 등(2007a)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감사인이 Big 4 회계법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감사품질이 낮은 감사인을 선호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 없어 모형에서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한다.⁷⁾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감사시간의 경우 감사업무 종료 후 공시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모형 (1)을 설정한다.

모형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A_TIME_t = a_0 + b_1 SIZE_t + b_2 ICNUM_t + b_3 BIG4_t + b_4 CONFM_t + b_5 INVREC_t + b_6 EXP T_t \\ + b_7 ISSUE_t + b_8 LIQ_t + b_9 LEVE_t + b_{10} OPN_{t-1} + b_{11} ROA_t + b_{12} LOSS_t + b_{13} GRW_t \\ + b_{14} FIRST_t + b_{15} AUDREG_t + b_{16} LARGE_t + b_{17} MARKET_t + \sum c_i IND_i + \sum d_i YR_i + \varepsilon_t$$

모형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A_FEE_{t+1} = a_0' + b_1' SIZE_t + b_2' ICNUM_t + b_3' BIG4_{t+1} + b_4' INVREC_t + b_5' EXP T_t + b_6' ISSUE_t \\ + b_7' LIQ_t + b_8' LEVE_t + b_9' OPN_t + b_{10}' ROA_t + b_{11}' LOSS_t + b_{12}' GRW_t + b_{13}' FIRST_{t+1} \\ + b_{14}' AUDREG_{t+1} + b_{15}' LARGE_{t+1} + b_{16}' MARKET_{t+1} + \sum c_i' IND_i + \sum d_i' YR_i + \epsilon_t$$

변수설명

A_TIME :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A_FEE :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SIZE : 감사대상회사의 총자산 자연로그 값

ICNUM : 취약기업의 취약점 개수, 취약기업이 아니면 0

BIG4 : 감사인이 BIG4이면 1, 아니면 0

CONFM : 연결자회사의 수의 제곱근 값

INVREC : 채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EXPT : 총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ISSUE : 주식 및 사채 발행 조달액의 절대값

LIQ : 유동비율

LEVE : 부채비율

OPN : 적정인 감사의견이면 0, 아니면 1

ROA : 총자산이익율

LOSS : 손실발생기업이면 1, 아니면 0

GRW : 매출액의 성장률

FIRST : 초도감사기업이면 1, 아니면 0

AUDREG : 감사인지정기업이면 1, 아니면 0

LARGE : 대주주1인 지분율

MARKET : KOSPI 상장기업이면 0, KOSDAQ 상장기업이면 1

IND : Kis-Value II의 중분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선정한 산업별 더미

YR : 연도별 더미

ε : 잔차항

7) 연결자회사의 수는 1년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007년의 연결자회사 수를 2006년 자료라 가정하고 모형 (2)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주요 관심변수인 ICNUM의 유의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NFM을 제외하고 모형 (2)를 설정한다.

통제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대상기업의 규모는 감사투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Palmrose, 1989). 최 관(1999)과 권수영 등(2005)은 감사대상회사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감사대상회사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SIZE는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회계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차별화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로 인하여 대형회계법인은 소형회계법인과 비교하여 감사의견 표명의 합리적 확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투입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할증된 감사보수를 청구할 것이다(Francis, 1984 ; Palmrose, 1986 ; 지현미와 문상혁, 2006).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투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BIG4 회계계수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자회사의 수를 의미하는 CONFM과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EXPT는 영업내용의 복잡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변수로 추가하였다. 또한 CONFM은 영업내용의 복잡성 외에도 연결재무제표 감사로 인한 감사투입의 증가를 통제한다.⁸⁾

감사대상기업의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증가할수록 실사, 조회 및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더 많은 감사시간이 투입된다(최 관과 백원선, 1998). 따라서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을 의미하는 INVREC의 회계계수는 양(+)의 기대부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클수록 잠재적 소송위험은 증가한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보수적인 감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수적인 감사는 결과적으로 감사시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잠재적 소송위험은 감사투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보상에 대한 할증보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외부 조달 자금이 증가할수록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주식 및 사채 발행 조달액의 절대값을 의미하는 ISSUE와 부채비율을 의미하는 LEVE를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LIQ, ROA 및 LOSS는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나타낸다. 기업의 재무적 위험은 감사위험을 증가시켜 감사투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의 성장성을 의미하는 GRW는 기업의 성장이 감사투입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수입제도 하에서 감사인들은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초도감사시 감사보수를 할인할 수 있다. 노준화 등(2003)과 신용인 등(2007)은 우리나라 감사시장에서도 초도감사 보수할인 현상(low balling)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초도감사를 의미하는 FIRST를 통제변수로 추가한다. 한편, 초도감사의 경우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사보수와 달리 감사시간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AUDREG는 지정감사인 여부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

8) 권수영 등(2005)과 박종일과 박찬웅(2007)은 CONFM을 연결자회사의 수에 자연로그 값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은 연결자회사의 수가 0이므로 자연로그 값(CONFM)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의 CONFM은 0이라 가정한다면 연결자회사의 수가 1개인 기업과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연결자회사의 수의 자연로그 값보다는 제곱근 값을 사용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의 차이를 명확히 나타낼 것이라 판단하였다.

정감사인인 자유수임제도의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인간의 가격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사유 자체가 높은 고유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정감사인의 경우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LARGE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칠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추가하였다(Niemi, 2005; 박종일과 박찬웅, 2007). Palmrose(1986, 1989)는 산업별로 감사보수가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최 관과 주인기(1998)의 연구에서도 산업별로 감사시간당 보수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별로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물가상승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시대적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별로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설정한다.

추가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수의 변화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즉, 통제위험의 변화와 감사인 의사결정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함에 있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모형 (3)과 모형 (4)를 설정한다.

모형 (3)과 모형 (4)의 종속변수는 각각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당해년도와 직전년도의 차이로 측정한다. 따라서 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들도 변화분으로 계산한다.

모형 (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감사시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begin{aligned} \Delta A_TIME_t = & a_0'' + b_1'' \Delta SIZE_t + b_2'' \Delta ICNUM_t + b_3'' BIG4DUM1_t + b_4'' BIG4DUM2_t \\ & + b_5'' BIG4DUM3_t + b_6'' \Delta CONF_M_t + b_7'' \Delta INVREC_t + b_8'' \Delta EXPT_t + b_9'' \Delta ISSUE_t \\ & + b_{10}'' \Delta LIQ_t + b_{11}'' \Delta LEVE_t + b_{12}'' OPN_{t-1} + b_{13}'' \Delta ROA_t + b_{14}'' LOSS_t + b_{15}'' \Delta GRW_t \\ & + b_{16}'' FIRST_t + b_{17}'' AUDREG_t + b_{18}'' \Delta LARGE_t + b_{19}'' MARKET_t + \sum c_i'' IND_i + \epsilon_t \end{aligned}$$

모형 (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감사보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⁹⁾

$$\begin{aligned} \Delta A_FEE_{t+1} = & a_0''' + b_1''' \Delta SIZE_t + b_2''' ICNUM_t + b_3''' BIG4DUM1_{t+1} + b_4''' BIG4DUM2_{t+1} \\ & + b_5''' BIG4DUM3_{t+1} + b_6''' \Delta INVREC_t + b_7''' \Delta EXPT_t + b_8''' \Delta ISSUE_t + b_9''' \Delta LIQ_t \\ & + b_{10}''' \Delta LEVE_t + b_{11}''' OPN_t + b_{12}''' \Delta ROA_t + b_{13}''' LOSS_t + b_{14}''' \Delta GRW_t \\ & + b_{15}''' FIRST_{t+1} + b_{16}''' AUDREG_{t+1} + b_{17}''' \Delta LARGE_{t+1} + b_{18}''' MARKET_{t+1} \\ & + \sum c_i''' IND_i + \epsilon_t \end{aligned}$$

변수설명

ΔA_TIME : 감사시간 자연로그 값의 변동

ΔA_FEE : 감사보수 자연로그 값의 변동

9) 현재까지 2007년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 2007년의 연결자회사의 수를 수집할 수 없어 연결자회사의 변동을 의미하는 $\Delta CONF_M_t$ 는 변수에서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한다.

$\Delta SIZE$: 피감사회사 총자산 자연로그 값의 변동
 $\Delta ICNUM$: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수의 변동
 $BIG4DUM1$: 직전년도의 감사인이 BIG4가 아니고 당해연도의 감사인이 BIG4이면 1, 아니면 0
 $BIG4DUM2$: 직전년도의 감사인이 BIG4이고 당해연도의 감사인이 BIG4가 아니면 1, 아니면 0
 $BIG4DUM3$: 직전년도와 당해연도 감사인이 BIG4이면 1, 아니면 0
 $\Delta CONFM$: 연결자회사의 수의 제공근 값의 변동
 $\Delta INVREC$: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
 $\Delta EXPT$: 총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
 $\Delta ISSUE$: 주식 및 사채 발행 조달액의 절대값의 변동
 ΔLIQ : 유동비율의 변동
 $\Delta LEVE$: 부채비율의 변동
 OPN : 적정인 감사의견이면 0, 아니면 1
 ΔROA : 총자산이익율의 변동
 $LOSS$: 손실발생기업이면 1, 아니면 0
 ΔGRW : 매출액 성장률의 변동
 $FIRST$: 초도감사기업이면 1, 아니면 0
 $AUDREG$: 감사인지정기업이면 1, 아니면 0
 $\Delta LARGE$: 대주주1인 지분율의 변동
 $MARKET$: KOSPI 상장기업이면 0, KOSDAQ 상장기업이면 1
 IND : Kis-Value II의 중분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선정한 산업별 더미
 ε : 잔차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수의 변화를 의미하는 $\Delta ICNUM$ 의 회귀계수인 b_2'' 와 b_2''' 를 살펴봄으로서 통제위험의 변화가 감사시간의 변화(ΔA_TIME)와 감사보수의 변화(ΔA_FE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권수영 등(2005)은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감사품질의 변화에 따른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변화를 통제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감사인의 규모에 대해 세 가지의 더미(dummy)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설정한다. 즉,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감사인이 모두 BIG4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된 2개 연도에서 감사인의 BIG4 여부를 고려하여 변수를 설정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수의 변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모형 (3)과 모형 (4)는 각각 2006년과 2007년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Raghunandan and Rama(2006)는 Sarbox 404조가 발효된 이후 감사보수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으로 인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증가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005년 감사시간 변화의 경우 변화의 원인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때문인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인해 높아진 통제위험 때문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통제위험의 변화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5년과 2006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수의 변화가 2006년의

감사시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감사보수의 경우 2005년과 2006년의 통제위험의 변화가 감사보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7년의 감사보수의 변화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2. 연구 표본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12월 결산 기업이다. 분석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금융업에 속하는 표본은 제외한다.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추출하였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표본은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한다.

- (1) 공시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업¹⁰⁾
- (2) 기업의 재무자료를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의 Kis - Value II 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 - 2000 에서 입수할 수 없는 기업
- (3)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
- (4)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이 없는 산업의 기업¹¹⁾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2005년과 2006년 2년 동안 취약점을 보고한 총 112개 가운데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시간에는 당기의 취약점이 영향을 주며, 감사계약단계에서 결정되는 감사보수에는 전년도 취약점이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2005년과 2006년에 취약점에 대응하는 감사시간은 2005년과 2006년의 자료를 이용하고, 감사보수는 2006년과 2007년의 자료를 이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112개 취약기업 가운데 감사시간에 대한 분석에는 87개 기업이 사용되고, 감사보수에 대한 분석에는 79개가 사용된다. 또한 감사시간에 대한 분석에는 총 1,210개의 표본이 사용되며, 감사보수에 대한 분석에는 총 1,266개의 표본이 사용된다.

<표 2>는 상장구분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기업과 통제기업 수를 보여준다. 패널 A를 보면 KOSPI 상장기업의 경우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5개 기업과 23개 기업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KOSDAQ 상장기업의 경우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21개 기업과 38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보고한 것을 알 수 있다. 패널 B에서 가설 2의 검증에 사용된 표본 중 취약기업의 수는 79개로 감사시간의 87개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10) 예를 들어, 3년 연속으로 동일한 감사시간을 공시한 기업과 100시간 미만의 감사시간을 공시한 기업, 공시한 감사보수가 1,000만원 이하인 기업 등은 표본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시간을 시간단위가 아닌 일별, 주별 자료로 공시한 기업도 제외한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감사시간의 경우 신뢰성에 대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시간의 경우 신중히 판단하였다(권수영 등 2005 ; 박종일과 박찬웅 2007 등).

11) Palmrose(1986, 1989)는 산업별로 감사보수가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취약기업이 없는 산업의 표본을 포함할 경우 분석결과에 취약기업이 없는 산업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취약기업이 없는 산업의 표본은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한다.

〈표 2〉 상장구분에 따른 취약점 보고기업과 통제기업 수

패널 A. 가설 1의 검증에 사용된 표본						
구 분		KOSPI		KOSDAQ		계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취약점 보고기업 수		5	21	23	38	87
통제기업 수	1배수 취약기업	5	21	23	38	87
	3배수 취약기업	15	63	69	114	261
	동일산업 전체 기업	95	288	385	355	1,123

패널 B. 가설 2의 검증에 사용된 표본						
구 분		KOSPI		KOSDAQ		계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취약점 보고기업 수		5	19	21	34	79
통제기업 수	1배수 취약기업	5	19	21	34	79
	3배수 취약기업	15	57	63	102	237
	동일산업 전체 기업	95	294	378	420	1,187

이명곤 등(2007b)은 취약기업으로 보고된 기업의 수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보고한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본의 분포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회귀계수가 과대예측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약기업과 대응표본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대응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취약점을 보고하지 않고 취약기업과 Kis - Value II 중분류 산업코드가 동일한 기업 중에서 자본의 시장가치가 유사한 기업을 선정한다.¹²⁾ 또한 취약기업으로 보고된 기업의 수가 적은데서 기인하는 편의(oversampling bias)가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기업을 취약기업의 1배수, 3배수 및 동일 산업에 속하는 전체 기업으로 추출하였다.¹³⁾

12) 선행연구들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기업의 규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응표본을 선정하여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나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3) 이와 관련하여 Zmijewski(1984)는 부실기업이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과 건전기업을 1 : 1 대응표본추출하면 편의가 발생하나 1 : 2.5 이상의 비율로 하면 어느 정도 이러한 편의를 제거할 수 있다(권수영(1999)에서 재인용). 취약기업의 Kis - Value II 중분류 산업코드가 동일한 기업 전체를 동일 산업에 속하는 전체 기업이라고 명칭하였다.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3>은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더미변수를 제외한 주요변수들이 상, 하위 1%를 벗어나는 경우 각각 1%와 99%의 값으로 조정(winsorization)하여 분석하였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시간의 평균은 6.499(약 664시간)이고 중위수는 6.368(약 594시간)로 나타났다. 감사보수(A_FEE)의 평균은 17.829(약 5,534만원), 중위수는 17.705(약 4,889만원)의 값을 보이고 있다.¹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의 수를 의미하는 ICNUM의 최대값이 6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점의 수가 가장 높은 기업의 취약점의 수가 6개임을 알 수 있다. 감사인의 규모를 의미하는 BIG4의 평균값은 0.538로 전체 표본의 약 53.8%가 BIG4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연결자회사의 수를 나타내는 CONFM의 중위수는 0으로 전체 표본의 50% 이상이 연결채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의 비중인 INVREC의 평균은 0.282로 나타났다며 유동비율 LIQ의 평균은 2.850의 값을 보이고 있다. 직전년도 감사의견을 나타내는 OPN의 평균은 0.016으로 나타나 전체 표본 중 약 1.6%의 기업이 직전년도에 비적정 감사의견이 표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도감사기업을 의미하는 FIRST의 평균은 0.209로 전체 표본에서 약 20.9%의 기업이 감사인을 변경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장유형을 나타내는 MARKET의 평균은 0.662로 나타나 전체 표본의 약 66.2%의 기업이 KOSDAQ 상장기업임을 알 수 있다.

<표 4>는 주요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ICNUM은 감사시간이나 감사보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ICNUM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의 수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보고 여부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ICNUM이 0 이라면 취약점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명곤 등(2007a)이 제시한 결과와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의 수는 기업규모(SIZE)와 기업의 수익률(ROA)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곤 등(2007a)의 결과와 다르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의 수(ICNUM)와 감사인의 규모(BIG4)는 -0.08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의 수(ICNUM)

14) 취약점 수에 따라 표본을 5개 집단(0개, 1개, 2개, 3개, 4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 ‘감사시간/총자산’과 ‘감사보수/총자산’을 비교하기 위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1배수 대응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집단 간 ‘감사시간/총자산’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감사보수/총자산’은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취약점이 3개 이상인 집단의 ‘감사보수/총자산’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_{값}=2.75$, $P_{값}=0.034$). 동일산업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면 취약점이 증가할수록 ‘감사시간/총자산’과 ‘감사보수/총자산’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각각 $F_{값}=24.75$, $P_{값}=0.000$, $F_{값}=34.11$, $P_{값}=0.000$).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단지 취약점과 감사시간, 취약점과 감사보수 관계의 방향성을 검토한 것이므로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는 ISSUE, LEVE, OPN, LOSS 및 AUDREG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는 CONFM, INVREC 및 EXPT와는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BIG4와 각각 0.40과 0.31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BIG4 회계법인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non-BIG4 회계법인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시간(A_TIME)의 경우 SIZE, CONFM, EXPT, LEVE 및 ROA와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INVREC, ISSUE, LIQ, LOSS, FIRST 및 MARKET과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 연결채무제표의 작성, 수출의 비중, 부채비율 및 기업의 수익성이 감사업무의 복잡성, 감사위험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보수(A_FEE)의 상관관계분석결과도 감사시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3〉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n=1,210)¹⁵⁾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대값	중위수	최소값
<i>A_TIME</i>	6.499	0.674	8.965	6.368	5.011
<i>A_FEE</i>	17.829	0.668	21.933	17.705	16.300
<i>SIZE</i>	25.044	1.416	31.688	24.764	20.346
<i>ICNUM</i>	0.126	0.543	6	0	0
<i>BIG4</i>	0.538	0.499	1	1	0
<i>CONFM</i>	0.888	1.478	11	0	0
<i>INVREC</i>	0.282	0.156	0.724	0.267	0.014
<i>EXPT</i>	0.301	0.326	0.991	0.154	0
<i>ISSUE</i>	0.265	0.300	1.784	0.157	0.020
<i>LIQ</i>	2.850	3.017	18.732	1.788	0.311
<i>LEVE</i>	0.418	0.233	1.633	0.410	0.032
<i>OPN</i>	0.016	0.124	1	0	0
<i>ROA</i>	-0.068	0.370	0.473	0.032	-2.251
<i>LOSS</i>	0.353	0.478	1	0	0
<i>GRW</i>	0.118	0.547	3.369	0.035	-0.769
<i>FIRST</i>	0.209	0.407	1	0	0
<i>AUDREG</i>	0.057	0.232	1	0	0
<i>LARGE</i>	0.337	0.178	0.911	0.330	0
<i>MARKET</i>	0.662	0.473	1	1	0

15) <표 3>은 모형 (1)에 사용된 변수들과 추가적으로 감사보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모형 (2)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3>과 큰 차이가 없어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 1) 표본수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분석에 사용된 1,210개의 표본을 의미함.
- 2) 모형 (1)에서 사용된 변수들과 감사보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여줌.
- 3) 변수 설명

A_TIME :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A_FEE :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SIZE : 감사대상회사의 총자산 자연로그 값
ICNUM : 취약기업의 취약점 개수, 취약기업이 아닌 경우는 0
BIG4 : 감사인이 BIG4이면 1, 아니면 0
CONFM : 연결자회사의 수의 제곱근 값
INVREC :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EXPT : 총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ISSUE : 주식 및 사채 발행 조달액의 절대값
LIQ : 유동비율
LEVE : 부채비율
OPN : 직전년도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면 0, 아니면 1
ROA : 총자산이익율
LOSS : 손실발생기업이면 1, 아니면 0
GRW : 매출액의 성장률
FIRST : 초도감사기업이면 1, 아니면 0
AUDREG : 감사인지정기업이면 1, 아니면 0
LARGE : 대주주1인 지분을
MARKET : KOSPI 상장기업이면 0, KOSDAQ 상장기업이면 1

〈표 4〉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분석 ($n=1,210$)¹⁶⁾

변수	A_TIME	A_FEE	SIZE	ICNUM	BIG4	CONFM	INPREC	EXPT	ISSUE	LIQ	LEVE	OPN	ROA	LOSS	GRW	FIRST	AUDREG	LARGE
A_FEE	0.78***																	
SIZE	0.71***	0.82***																
ICNUM	-0.03	-0.02	-0.18***															
BIG4	0.40***	0.31***	0.35***	-0.08***														
CONFM	0.59***	0.66***	0.68***	-0.07**	0.17***													
INPREC	-0.09***	-0.08***	-0.05*	-0.12***	0.01	-0.17***												
EXPT	0.11***	0.17***	0.21***	-0.09***	0.10***	0.22***	0.09***											
ISSUE	-0.11***	-0.14***	-0.39***	0.38***	-0.21***	-0.15***	-0.17***	-0.17***										
LIQ	-0.16***	-0.22***	-0.20***	-0.03	-0.01	-0.16***	-0.23***	-0.06**	-0.04									
LEVE	0.08***	0.16***	0.02	0.17***	-0.07**	0.06**	0.19***	0.03	0.33***	-0.59***								
OPN	-0.03	-0.06**	-0.15***	0.33***	-0.11***	-0.05	-0.08***	-0.06**	0.22***	0.02	0.14***							
ROA	0.15***	0.13***	0.34***	-0.38***	0.20***	0.12***	0.19***	0.13***	-0.62***	0.07**	-0.36***	-0.27***						
LOSS	-0.17***	-0.17***	-0.35***	0.24***	-0.17***	-0.17***	-0.15***	-0.01	0.50***	-0.03	0.27***	0.13***	-0.59***					
GRW	-0.02	-0.04	-0.05*	-0.01	-0.07**	-0.05*	0.09***	-0.11***	0.04	-0.04	0.09***	0.07**	0.03	-0.08***				
FIRST	-0.10***	-0.16***	-0.16***	0.02	-0.11***	-0.07**	-0.01	-0.07***	0.08***	0.03	0.01	0.10***	-0.11***	0.06**	0.06**			
AUDREG	-0.01	0.01	-0.14***	0.17***	-0.17***	-0.03	-0.14***	-0.10***	0.31***	-0.02	0.17***	0.11***	-0.29***	0.19***	0.10***	0.24***		
LARGE	0.05	0.08***	0.23***	-0.20***	0.11***	0.07**	0.05*	0.01	-0.34***	0.01	-0.16***	-0.12***	0.30***	-0.31***	-0.03	-0.05	-0.17***	
MARKET	-0.43***	-0.51***	-0.60***	0.04	-0.20***	-0.41***	-0.01	-0.10***	0.11***	0.20***	-0.11***	0.06**	-0.14***	0.19***	0.09***	0.08***	0.06**	-0.24***

1) 표본수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분석에 사용된 1,210개의 표본을 의미함.

2) 상관계수의 값은 Pearson 상관계수를 나타냄.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4) 변수설명은 <표 3>과 같음.

16) <표 4>는 모형 (1)에 사용된 변수와 감사보수의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모형 (2)에 사용된 변수의 상관계수는 <표 4>와 큰 차이가 없어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2.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¹⁷⁾

<표 5>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시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대응표본이 1배수인 표본과 3배수인 표본, 동일 산업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모형 (1)을 분석한다. 또한 취약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KOSPI와 KOSDAQ 전체 표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표 5>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표본에서 수정 R^2 가 21.83% 이상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설 1과 관련한 관심변수 ICNUM의 회귀계수는 동일 산업 전체 표본 중 KOSPI 표본과 전체 표본에서만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이 지지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과 감사시간¹⁸⁾

패널 A. 1배수 대응표본							
분석모형		KOSPI (n=52개)		KOSDAQ (n=122)		KOSPI+KOSDAQ 전체 표본 (n=174)	
변 수	기대부호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절편		-1.946	-0.91	0.666	0.30	0.656	0.48
SIZE	+	0.321***	4.03	0.228**	2.58	0.231***	4.40
ICNUM	+	0.056	0.70	0.039	0.78	0.033	0.83
BIG4	+	0.178	0.93	0.474***	4.34	0.381***	4.37
CONFM	+	0.094	1.63	-0.027	-0.38	0.056	1.26
INVREC	+	-0.097	-0.18	-0.276	-0.78	-0.084	-0.30
EXPT	+	-0.507*	-1.83	-0.037	-0.20	-0.100	-0.68
ISSUE	+	0.483	1.05	0.068	0.42	0.122	0.95
LIQ	-	-0.004	-0.08	-0.004	-0.21	0.006	0.41
LEVE	+	0.483	1.13	0.284	1.29	0.230	1.29
OPN	+	2.040	1.16	0.099	0.56	0.095	0.60
ROA	-	0.599	0.78	0.145	1.38	0.131	1.42
LOSS	+	0.271	1.20	-0.007	-0.05	0.055	0.50

17) <표 4>의 상관관계분석을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를 의미하는 SIZE와 상장구분을 의미하는 MARKET의 상관계수가 -0.60으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산업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모형 (1)과 모형 (2)의 분석에서 MARKET을 제외한 결과와 포함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8) <표 5>의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지수(VIF)는 3배수 표본 및 동일산업 전체 표본에서 모두 최대 4.059를 넘지 않고 있다. 다만 1배수 표본에서 OPN과 ROA의 분산팽창지수(VIF)의 값이 10을 넘고 있다. OPN과 ROA를 제거한 후의 결과에서는 분산팽창지수(VIF)의 값이 4.474를 넘지 않았으나 <표 5>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5〉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과 감사시간 (계속)

분석모형		KOSPI (n=527개)		KOSDAQ (n=122)		KOSPI+KOSDAQ 전체 표본 (n=174)	
변 수	기대부호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i>GRW</i>	+	0.141	0.61	0.063	1.03	0.041	0.75
<i>FIRST</i>	+	0.109	0.57	0.117	0.85	0.127	1.22
<i>AUDREG</i>	+	0.441*	1.72	-0.032	-0.20	0.042	0.33
<i>LARGE</i>	?	-0.032	-0.07	-0.721**	-2.17	-0.600**	-2.46
<i>MARKET</i>	?					-0.293**	-2.26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수정 R^2		0.5896		0.2248		0.4226	

패널 B. 3배수 대응표본

분석모형		KOSPI (n=104)		KOSDAQ (n=244)		KOSPI+KOSDAQ 전체 표본 (n=348)	
변 수	기대부호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절편		-1.619	-1.22	2.302*	1.72	0.507	0.55
<i>SIZE</i>	+	0.313***	6.32	0.161***	3.05	0.234***	6.59
<i>ICNUM</i>	+	0.058	1.00	0.016	0.41	0.025	0.81
<i>BIG4</i>	+	0.326***	3.59	0.391***	5.66	0.357***	6.49
<i>CONFM</i>	+	0.078**	2.58	0.051	1.25	0.081***	3.30
<i>INVREC</i>	+	-0.096	-0.29	0.203	0.90	0.103	0.56
<i>EXPT</i>	+	-0.117	-0.68	-0.136	-1.1	-0.107	-1.08
<i>ISSUE</i>	+	0.248	0.96	0.106	0.93	0.165*	1.75
<i>LIQ</i>	-	-0.006	-0.34	-0.008	-0.69	-0.002	-0.20
<i>LEVE</i>	+	0.203	0.82	-0.078	-0.51	0.004	0.03
<i>OPN</i>	+	0.444	0.46	0.176	1.19	0.210	1.56
<i>ROA</i>	-	-0.174	-0.39	0.070	0.90	0.089	1.26
<i>LOSS</i>	+	0.095	0.73	0.031	0.37	0.059	0.86
<i>GRW</i>	+	-0.030	-0.22	0.039	0.82	0.020	0.47
<i>FIRST</i>	+	0.282***	2.82	0.013	0.16	0.102	1.55
<i>AUDREG</i>	+	0.313	1.62	0.082	0.72	0.107	1.13
<i>LARGE</i>	?	-0.375	-1.40	-0.403*	-1.84	-0.509***	-3.04
<i>MARKET</i>	?					-0.197**	-2.38

〈표 5〉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과 감사시간 (계속)

분석모형		KOSPI (n=104)		KOSDAQ (n=244)		KOSPI+KOSDAQ 전체 표본 (n=348)	
변 수	기대부호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수정 R^2		0.7168		0.2183		0.4839	

패널 C. 동일산업 전체 표본

분석모형		KOSPI (n=409)		KOSDAQ (n=801)		KOSPI+KOSDAQ 전체 표본 (n=1,210)	
변 수	기대부호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절편		-3.076***	-5.59	0.947	1.37	-1.238***	-2.84
SIZE	+	0.355***	17.17	0.212***	7.73	0.296***	17.90
ICNUM	+	0.158***	3.15	0.018	0.58	0.044*	1.67
BIG4	+	0.250***	5.32	0.318***	9.55	0.287***	10.53
CONFM	+	0.080***	5.18	0.059***	2.87	0.082***	6.67
INVREC	+	0.099	0.59	0.003	0.03	0.010	0.11
EXPT	+	-0.102	-1.25	-0.146**	-2.42	-0.130***	-2.67
ISSUE	+	0.452***	3.63	0.227***	3.12	0.321***	5.33
LIQ	-	-0.002	-0.17	-0.005	-0.78	-0.001	-0.19
LEVE	+	0.141	0.97	-0.056	-0.61	0.009	0.11
OPN	+	0.409	1.28	0.165	1.39	0.214**	1.97
ROA	-	0.027	0.21	0.101*	1.79	0.104**	2.07
LOSS	+	0.027	0.43	0.026	0.62	0.043	1.22
GRW	+	-0.113*	-1.82	0.034	1.29	0.019	0.81
FIRST	+	0.110*	1.94	-0.044	-1.10	-0.003	-0.10
AUDREG	+	0.097	0.88	0.151**	2.13	0.152**	2.55
LARGE	?	0.079	0.64	-0.330***	-3.26	-0.236***	-2.98
MARKET	?					-0.009	-0.22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수정 R^2		0.7371		0.2374		0.5911	

-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2) 1배수 대응표본, 3배수 대응표본 및 동일산업 전체 표본은 각각 통제기업이 1배수인 표본, 3배수인 표본 및 동일산업에 속하는 전체 기업 표본을 의미함.
- 3) n은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를 의미함.
- 4) 변수설명은 <표 3>과 같음.

ICNUM을 제외한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를 의미하는 SIZE가 모든 표본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서 기업규모가 감사시간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BIG4의 회귀계수는 1배수 대응표본 중 KOSPI 표본을 제외하고 모든 표본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BIG4 감사인의 경우 우수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non-BIG4 감사인에 비하여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자회사의 수를 의미하는 CONFM의 회귀계수는 KOSDAQ 표본을 제외한 3배수 표본과 동일 산업 전체 표본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업무의 복잡성이 감사투입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주식 및 사채 발행 조달액의 절대 값을 의미하는 ISSUE는 동일 산업 전체 표본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 자본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감사위험이 높아져 감사투입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높은 ROA는 기업실패위험을 감소시켜 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투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분석결과 동일 산업 전체 표본 중 KOSDAQ 표본과 전체 표본에서 오히려 감사투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ROA의 원인에 해당하는 매출액, 매출채권, 재고자산 변동 등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감사투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FIRST의 회귀계수는 통제기업이 3배수 표본과 동일 산업 전체 표본 중 KOSPI 표본에서만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서 초도감사의 경우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UDREG의 회귀계수는 1배수 표본 중 KOSPI 표본과 동일산업 전체 표본 중 KOSDAQ 표본, 전체 표본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표 6>은 감사보수를 분석하는 모형 (2)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표본에서 수정 R^2 는 모두 30.59%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관심변수 ICNUM의 회귀계수는 통제기업이 3배수 대응표본과 동일산업 전체 표본의 KOSDAQ과 전체 표본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CNUM을 제외한 통제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 감사인의 규모(BIG4), 부채비율(LEVE), 주식 및 사채 발행 조달액(ISSUE) 및 지정감사인(AUDREG)의 회귀계수는 동일 산업 전체 표본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황인태와 강선민(2006)의 연구결과와 같이 AUDREG의 경우 1배수 대응표본과 3배수 대응표본의 KOSPI 표본을 제외한 모든 표본에서 감사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정감사의 경우 감사위험이 높기 때문에 높은 감사위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감사보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도감사를 의미하는 FIRST의 회귀계수는 모든 표본에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보이고 있어 초도감사 보수할인 현상(low balling)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과 감사보수¹⁹⁾

패널 A. 1배수 대응표본							
분석모형		KOSPI (n=48)		KOSDAQ (n=110)		KOSPI+KOSDAQ 전체 표본 (n=158)	
변 수	기대부호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절편		9.226***	3.33	9.484***	6.23	9.116***	7.98
SIZE	+	0.338***	3.39	0.323***	5.41	0.343***	8.05
ICNUM	+	-0.109	-1.23	0.053	1.27	0.040	1.17
BIG4	+	0.344*	1.98	0.158	1.62	0.128*	1.72
INVREC	+	-0.879	-1.65	-0.281	-0.89	-0.325	-1.32
EXPT	+	0.083	0.30	-0.108	-0.77	-0.064	-0.55
ISSUE	+	0.013	0.04	0.184	1.64	0.181*	1.96
LIQ	-	-0.016	-0.67	0.015	1.15	0.013	1.21
LEVE	+	1.340**	2.79	0.339*	1.89	0.392**	2.52
OPN	+			-0.069	-0.45	-0.097	-0.68
ROA	-	-0.979**	-2.55	-0.043	-0.47	-0.074	-0.91
LOSS	+	-0.198	-0.98	0.015	0.14	0.002	0.03
GRW	+	0.075	0.33	-0.006	-0.13	-0.002	-0.04
FIRST	+	0.092	0.42	-0.086	-0.82	-0.041	-0.48
AUDREG	+	0.183	0.67	0.205*	1.69	0.213**	2.18
LARGE	?	-0.660	-1.23	-0.244	-0.86	-0.485**	-2.14
MARKET	?					0.031	0.31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수정 R ²		0.6445		0.3059		0.4875	

패널 B. 3배수 대응표본							
분석모형		KOSPI (n=96)		KOSDAQ (n=220)		KOSPI+KOSDAQ 전체 표본 (n=316)	
변 수	기대부호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절편		6.738***	5.29	9.411***	10.32	8.131***	12.02
SIZE	+	0.433***	9.55	0.325***	9.18	0.378***	15.01
ICNUM	+	0.001	0.02	0.077**	2.48	0.055**	2.08
BIG4	+	0.093	1.05	0.118**	2.30	0.100**	2.30

19) <표 6>의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든 표본에서 최대 3.995를 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과 감사보수 (계속)

분석모형		KOSPI (n=96)		KOSDAQ (n=220)		KOSPI+KOSDAQ 전체 표본 (n=316)	
변 수	기대부호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i>INVREC</i>	+	-0.112	-0.35	0.119	0.69	0.068	0.46
<i>EXPT</i>	+	-0.017	-0.10	-0.156*	-1.75	-0.114	-1.45
<i>ISSUE</i>	+	0.079	0.37	0.152**	1.99	0.189***	2.76
<i>LIQ</i>	-	-0.015	-0.87	0.011	1.39	0.010	1.33
<i>LEVE</i>	+	0.513*	1.72	0.247**	2.15	0.270**	2.57
<i>OPN</i>	+			-0.019	-0.15	-0.002	-0.02
<i>ROA</i>	-	-0.609**	-2.41	-0.033	-0.55	-0.057	-0.98
<i>LOSS</i>	+	-0.050	-0.41	0.047	0.75	0.034	0.64
<i>GRW</i>	+	-0.066	-0.54	-0.029	-0.87	-0.029	-0.89
<i>FIRST</i>	+	0.007	0.06	-0.028	-0.42	-0.002	-0.05
<i>AUDREG</i>	+	0.271	1.18	0.165*	1.97	0.199**	2.57
<i>LARGE</i>	?	-0.012	-0.04	-0.199	-1.18	-0.305**	-2.17
<i>MARKET</i>	?					-0.001	0.01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수정 R^2		0.6618		0.352		0.57	

패널 C. 동일산업 전체 표본

분석모형		KOSPI (n=413)		KOSDAQ (n=853)		KOSPI+KOSDAQ 전체 표본 (n=1,266)	
변 수	기대부호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절편		7.228***	16.8	9.281***	21.62	7.731***	27.33
<i>SIZE</i>	+	0.413***	26.66	0.333***	19.82	0.393***	37.84
<i>ICNUM</i>	+	0.054	1.20	0.082***	3.30	0.065***	2.97
<i>BIG4</i>	+	0.109***	2.65	0.143***	6.52	0.129***	6.52
<i>INVREC</i>	+	-0.076	-0.52	0.067	0.95	0.018	0.27
<i>EXPT</i>	+	-0.035	-0.48	-0.080**	-2.03	-0.058*	-1.66
<i>ISSUE</i>	+	0.213*	1.9	0.188***	3.99	0.237***	5.49
<i>LIQ</i>	-	0.002	0.2	0.005	1.25	0.006	1.64
<i>LEVE</i>	+	0.432***	3.33	0.239***	3.73	0.302***	5.14
<i>OPN</i>	+			-0.046	-0.42	-0.028	-0.24
<i>ROA</i>	-	-0.089	-0.82	-0.018	-0.48	-0.018	-0.49

〈표 6〉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과 감사보수 (계속)

분석모형		KOSPI (n=413)		KOSDAQ (n=853)		KOSPI+KOSDAQ 전체 표본 (n=1,266)	
변 수	기대부호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LOSS	+	-0.024	-0.44	0.016	0.58	0.008	0.30
GRW	+	0.013	0.24	-0.029*	-1.81	-0.025	-1.59
FIRST	+	0.019	0.45	-0.052	-1.50	-0.018	-0.67
AUDREG	+	0.236*	1.96	0.201***	3.59	0.205***	4.02
LARGE	?	-0.167	-1.42	-0.244***	-3.43	-0.251***	-4.10
MARKET	?					0.014	0.47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수정 R^2		0.7595		0.4169		0.7086	

-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2) 1배수 대응표본, 3배수 대응표본 및 동일산업 전체 표본은 각각 통제기업이 1배수인 표본, 3배수인 표본 및 동일산업에 속하는 전체 기업 표본을 의미함.
- 3) n은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를 의미함.
- 4) 변수설명은 <표 3>과 같음.

3.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통제위험을 평가하고 감사보수를 결정한다면 검토의견의 변경에 상응하여 감사보수가 변화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취약점 수의 변화에 따른 감사보수의 변화를 분석한다. 아울러 감사시간에 대한 변동분석도 수행하여 <표 5>의 결과를 보완하고자 한다. <표 7>의 패널 A는 감사시간의 변화에 대한 모형 (3)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패널 B는 감사보수의 변화에 대한 모형 (4)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7>의 패널 A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표본에서 수정 R^2 가 5.78%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설 1과 관련한 관심변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수의 변화($\Delta ICNUM$)는 감사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5>의 결과와 동일하게 가설 1은 기각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수의 변화($\Delta ICNUM$)를 제외한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BIG4DUM1$ 의 경우 모든 표본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BIG4DUM2$ 의 회귀계수는 모든 표본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BIG4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보다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결과²⁰⁾

패널 A. 감사시간의 변화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미치는 영향(종속변수 : 감사시간의 변화)							
분석모형		KOSPI (n=309)		KOSDAQ (n=393)		KOSPI+KOSDAQ 전체 표본 (n=702)	
변 수	기대부호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절편		0.023	0.55	0.032	0.57	0.040	0.98
$\Delta SIZE$	+	-0.006	-0.09	0.021	0.47	0.008	0.23
$\Delta ICNUM$	+	-0.030	-0.78	-0.004	-0.19	-0.005	-0.28
$BIG4DUM1$	+	0.347***	4.09	0.326***	2.71	0.328***	4.53
$BIG4DUM2$	-	-0.285***	-2.85	-0.290***	-2.87	-0.249***	-3.57
$BIG4DUM3$	+	0.034	1.15	-0.014	-0.44	0.002	0.09
$\Delta CONFM$	+	0.022	1.15	0.054**	2.42	0.045***	3.06
$\Delta INVREC$	+	0.394*	1.68	0.154	1.19	0.179*	1.67
$\Delta EXPT$	+	-0.040	-0.22	-0.152	-1.52	-0.156*	-1.88
$\Delta ISSUE$	+	0.029	0.27	-0.069	-1.54	-0.060*	-1.69
ΔLIQ	-	0.018	1.53	-0.002	-0.61	0.001	0.16
$\Delta LEVE$	+	0.115	0.79	0.113*	1.79	0.101**	1.99
ΔOPN	+	-0.137**	-2.09	-0.008	-0.31	-0.030	-1.42
ΔROA	-	-0.048	-0.21	0.094	0.86	0.094	1.01
$LOSS$	+	0.016	0.44	-0.006	-0.2	0.008	0.36
ΔGRW	+	0.035	1.11	-0.020*	-1.73	-0.009	-0.9
$FIRST$	+	-0.010	-0.22	0.009	0.13	-0.013	-0.33
$AUDREG$	+	-0.170**	-2.01	0.066	0.91	-0.027	-0.5
$\Delta LARGE$	?	0.019	0.11	0.013	0.12	0.015	0.17
$MARKET$	?					-0.004	-0.12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수정 R^2		0.1328		0.0578		0.0771	

20) <표 7>의 회귀분석에 사용된 일부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패널 A의 KOSDAQ 기업 표본에서는 $\Delta ISSUE$ 와 $\Delta LEVE$ 의 분산팽창지수(VIF)의 값이 10을 넘고 있으며, 패널 B의 KOSDAQ 기업 표본과 전체 표본에서 OPN 과 ΔROA 의 분산팽창지수(VIF)의 값이 10을 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7〉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계속)

패널 B. 감사보수의 변화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미치는 영향(종속변수 : 감사보수의 변화)

분석모형		KOSPI (n=313)		KOSDAQ (n=454)		KOSPI+KOSDAQ (n=767)	
변 수	기대부호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절편		-0.029	-0.8	-0.078*	-1.81	-0.060*	-1.75
$\Delta SIZE$	+	0.022	0.39	0.124***	3.72	0.084***	3.09
$\Delta ICNUM$	+	0.015	0.44	0.061***	2.7	0.062***	3.47
$BIG4DUM1$	+	0.147*	1.74	0.087	0.61	0.153**	2.13
$BIG4DUM2$	-	-0.123	-1.58	-0.109	-1.47	-0.108**	-2.09
$BIG4DUM3$	+	0.009	0.35	0.051**	2.21	0.038**	2.22
$\Delta INVREC$	+	-0.139	-0.64	0.223**	2.17	0.156*	1.76
$\Delta EXPT$	+	-0.162	-1.09	-0.022	-0.26	-0.058	-0.83
$\Delta ISSUE$	+	-0.095	-0.93	0.096**	2.5	0.056*	1.74
ΔLIQ	-	-0.013	-1.16	-0.002**	-2.56	-0.002***	-2.78
$\Delta LEVE$	+	0.074	0.43	-0.114**	-2.03	-0.059	-1.25
OPN	+			-0.041	-0.27	-0.084	-0.62
ΔROA	-	-0.147**	-2.58	-0.003	-0.17	-0.024	-1.36
$LOSS$	+	-0.026	-0.79	0.002	0.09	-0.006	-0.35
ΔGRW	+	0.009	0.38	-0.010	-1.29	-0.007	-0.99
$FIRST$	+	-0.104***	-3.43	-0.113**	-2.31	-0.109***	-4.15
$AUDREG$	+	0.183**	2.07	0.141**	2.41	0.139***	3.07
$\Delta LARGE$	?	0.009	0.05	-0.318**	-2.5	-0.208**	-2.06
$MARKET$	?					0.077***	3.24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수정 R^2		0.0933		0.0995		0.1183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n은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를 의미함.

3) 변수설명.

 $\Delta SIZE$: 피감사회사 총자산 자연로그 값의 변동 $\Delta ICNUM$: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수의 변동 $BIG4DUM1$: 직전년도의 감사인이 BIG4가 아니고 당해연도의 감사인이 BIG4이면 1, 아니면 0 $BIG4DUM2$: 직전년도의 감사인이 BIG4이고 당해연도의 감사인이 BIG4가 아니면 1, 아니면 0 $BIG4DUM3$: 직전년도와 당해연도 감사인이 BIG4이면 1, 아니면 0 $\Delta CONFM$: 연결자회사의 수의 제공근 값의 변동 $\Delta INVREC$: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 $\Delta EXPT$: 총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

$\Delta ISSUE$: 주식 및 사채 발행 조달액의 절대값의 변동
 ΔLIQ : 유동비율의 변동
 $\Delta LEVE$: 부채비율의 변동
 OPN : 적정인 감사의견이면 0, 아니면 1
 ΔROA : 총자산이익율의 변동
 $LOSS$: 손실발생기업이면 1, 아니면 0
 ΔGRW : 매출액 성장률의 변동
 $FIRST$: 초도감사기업이면 1, 아니면 0
 $AUDREG$: 감사인지정기업이면 1, 아니면 0
 $\Delta LARGE$: 대주주1인 지분율의 변동
 $MARKET$: KOSPI 상장기업이면 0, KOSDAQ 상장기업이면 1

<표 7>의 패널 B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표본에서 수정 R^2 가 9.33%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관심변수인 $\Delta ICNUM$ 은 KOSDAQ 표본과 전체 표본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점 수가 증가할 경우 청구되는 감사보수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의 결과를 정리하면, 취약점 수의 변화가 감사시간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감사보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변동분석 결과에서도 가설 1은 기각되며 가설 2는 지지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감사시간과 관련이 없지만 감사보수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시간이 증가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의 타협으로 발생한 감사실패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²¹⁾ 이명곤과 이세철(2004)의 연구는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할 때 통제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명곤과 이화득(2004)은 부실감사의 주요 원인으로 충분하지 못한 감사시간을 지적하고 있다.

V. 결 론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를 위한 감사계획단계에서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사를 통하여 통제위험을 평가한다. 감사인은 이 과정에서 파악된 통제위험을 바탕으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통제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되며, 감사절차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

21)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금융감독원의 감리현황을 보면, 감리선정기업의 30%~40%정도가 감리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점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은 감사시간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감사인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경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외감법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의무화되고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초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와 재무제표 감사업무의 유기적 조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시간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감사보수의 성격을 2가지로 구분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보수에는 감사자원의 투입에 대한 보상과 감사인의 잠재적 배상책임 손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강내철과 김길훈, 2005).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감사투입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감사인의 잠재적 배상책임 손실에 대한 보상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기업실패위험이 높게 평가되고, 이러한 위험과 관련한 잠재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험할증 보수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용성을 감사인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업무가 감사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아직 시행초기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결과를 감사인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초기에 제도의 유용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또한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도적, 실무적 문제점을 조망함으로써 추후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05년과 2006년 취약기업 표본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결과에 편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감사시간의 경우 신뢰성에 대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감사시간의 경우 신중히 판단하여 표본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선정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초기인 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의 신뢰성이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내철 · 김길훈. 2005. “기업실패위험이 감사보수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1호 : 219 - 239.
- 권수영. 1999. “도산예측 모형에서의 감사의견의 유용성”. 회계학연구 제24권 제3호 : 81 - 107.
- 권수영 · 김문철. 2001.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과 감사보수체계 변화로 인한 효과분석”. 회계학연구 제26권 제2호 : 115 - 143.
- 권수영 · 김문철 · 정태진. 2005.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 47 - 76.
- 노준화 · 배길수 · 전영순. 2003. “지정감사인이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가?”.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 177 - 202.
- 박종일 · 박찬웅. 2007.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이 비정상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5호 : 119 - 159.
- 신용인 · 최 관 · 조현우. 2007.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2권 제1호 : 173 - 207.
- 신현걸. 200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 현황 분석”. 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 107 - 128.
- 이명곤 · 김우영 · 김중현. 2007a.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기업특성”. 회계정보연구 제25권 제2호 : 161 - 194.
- 이명곤 · 이세철. 2004. “입증절차 중 분석적 절차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3권 제1호 : 143 - 165.
- 이명곤 · 이화득. 2004. “회계실패의 원인과 해결 방안”. 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 181 - 217.
- 이명곤 · 최상태 · 장석진. 2007b.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 이익조정 그리고 정보위험과의 관련성”. 회계와 감사연구 제46호 : 61 - 97.
- 지현미 · 문상혁. 2006. “소송위험이 감사시간과 감사인의 보수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3호 : 311 - 336.
- 최 관. 1999. “감사서비스의 생산과 피감사회사의 특성”. 경영학연구 제28권 제3호 : 609 - 635.
- 최 관 · 백원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 49 - 75.
- 최 관 · 주인기. 1998. “외부감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피감사회사의 특성별분석과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7권 제1호 : 61 - 86.
- 황인태 · 강선민. 2006. “지정감사인의 감사보수는 과연 적정한가?”. 회계저널 제15권 특별호 : 91 - 122.
- Francis, J. 1984.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 :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August) : 133 - 151.
- Means, K. and P. Kazenski. 1987. Improving Internal Control Can Cut Audit Costs. *Management Accounting*(January) : 48 - 51.

- Niemi, L. 2005. Audit Effort and Fees under Concentrated Client Ownership : Evidence from Four International Audit Firm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40 : 303 - 323.
- Palmrose, Z. 1986. The Effect of Nonaudit Services on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Autumn) : 405 - 411.
- Palmrose, Z., 1989. The Relation of Audit Contract Type to Audit Fees and Hour. *The Accounting Review* 64(July) : 488 - 499.
- Raghunandan, K. and D. Rama. 2006. SOX section 404 material weakness disclosures and audit fee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5 (May) : 99 - 114.
- Simunic, D. 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Spring) : 161 - 190.
- Zmijewski, M. 1984.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he Estimation of Financial Distress Prediction Mode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2 Supplement : 59 - 82.

The Effects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on Audit Hours and Audit Fees

Myung Gon Lee* · Se Chul Lee** · Seok Jin Chang***

— <Abstract> —

Implementation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IACS) has become a mandatory requirement for companies under external audit law in Korea. IACS requires managers to report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t also requires auditors to assess manager's report and to express auditor's own opinion about IAC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whether auditor's opinion about IACS is useful information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external audit procedure.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auditor's opinion about IACS and audit input. The audit input is measured by audit hours. This paper also examines a relationship between auditor's opinion about IACS and audit fees.

The material weaknesses in IACS could increase the control risk of audited companies.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material weaknesses in IACS increase audit hours and audit fees.

Unexpectedly, one result of this paper shows that the material weaknesses in IACS do not increase the audit hours. This result may be obtained by two reasons. First, this result may arise from the fact that auditors perform audit procedures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appropriateness of the IACS. Second, auditors may use their review opinion about IACS ineffectively in the process of auditing financial statements.

Another result shows that the material weaknesses in IACS increase audit fees. If a company has material weaknesses in IACS, then its business failure risk may be high. In that case, auditors may require a premium for expressing an audit opinion in a more riskier audit environment.

This paper analyzes the usefulness of IACS from the auditor's perspective. The primary contribution of our study is to enhance a general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IACS by presenting the effect of auditor's review opinion about IACS on financial statement audit. The result of our study may also provide both auditors and regulators with useful information for improving IACS.

<Key words> Weaknesses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udit Hours, Audit Fees, Audit Failure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 Seoul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ccounting, Hanyang University, Seoul

*** Master and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ccounting, Hanyang University, Seoul